

‘규칙 모르식’

2016/05/15 15:34 입력



고층 건물, 낙뢰(벼락) 우려



영암군 삼호읍 용암리 신축 한, 모 아파트 건축물이 시설기준인 측면 피뢰침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 사용 전 승인을 받았다.

피뢰침 설비 문제가 발생, 주민들의 주목이 되고 있다.

낙뢰(벼락)를 막기 위해 고층 건물일수록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낙뢰(벼락)를 맞을 경우 전기·전자 손상 및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을 받게 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층 건물의 낙뢰예방을 위해 설치하도록 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다.

용암리의 모 아파트 역시 건물 높이가 60m 이상 고층 건물로 측면 피뢰설비는 필히 설치해야 한다. 본 기자는 현장을 확인 결과 설계 과정에서부터 누락되었음을 확인했다.

해당 아파트의 관계자들은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사용 전 검사 완료까지 관계규정을 숙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행정 관계자는 “그런 것이 있었냐고” 의아해하며 “검토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했다. 관계 공무원이 이런 규정도 모르다니 주민들은 “어이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수일 후 재확인 결과 담당 관계자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 서류를 검토, 적합하다고 판정, 사용 전 승인을 해주었다”고 했다.

주민을 위해 사전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은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승인을 했다는 말에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허탈한 심정이라고 한다.

고층 건물은 높으므로 낙뢰(벼락)를 맞을 우려가 크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낙뢰의 예방 차원에서 건축물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5항에 높이가 60m 이상 건물은 지면에서 건물 규모 높이 5분의 4지점에 낙뢰 방지용 측면 피뢰 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아파트는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함께 생활하는 복된 삶의 터전이며, 가장 안전한 안식처다. 태풍이 불고 억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두 행복한 안식처로 찾아온다. 안전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안전을 도모하기는커녕 규정에 명시된 설치기준도 안 했다면 어찌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는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이 번 일을 계기로 또다시 피뢰설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암=전대영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jknews11@hanmail.net

【 전대영 기자 】

전대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전광투데이(jeonkwangtoday.com) - copyright © 전광투데이.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래도 됩니까?

2016/07/17 16:26 입력



군수실 문턱 너무 높다

영암군 삼호읍 용암리 166번지에 자리한 대블렉시안 아파트는 4개 동으로 190세대이며 대형 고층아파트이다. 농촌에서 100세대 이상이면 큰 동네라고 부른다.

낙뢰 또는 벼락은 7~8월경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나 고층건물은 일반건축과 달리 벼락에 취약하다. 벼락에 취약한 고층건물에 대한 낙뢰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국제 법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산업규정에 맞춰 제정하였으며 의무시설 화 하게 돼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필자는 학생 시절부터 전기에 대해 많은 관심 속에 생활해 왔다. 또한, 영암은 나의 고향이기 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끝고 단념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학생 시절부터 전기에 대해 많은 관심 속에 생활해 왔다. 또한, 영암은 나의 고향이기 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끝고 단념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5일 전동평 군수님과 면담을 했다. 면담 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

해 피뢰설비가 의무 설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쾌히 승낙했다.

드디어 지난 6월 13일 시험을 시행했다. 필자도 함께 현장에 참여했다. 암담하다.

1. 시험사와 시공사의 관계는 서로 협력관계임.
2. 각 개·소별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목적이었으나 옥탑 층에서 모두 연결된 상태로 시험 함.
3. 철근 구조물과 대지에 대한 접지측정 시 지하층에서 접지선과 철근 구조물 상호 연결 상태 로 시험하므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함.
4. 실시설계도면 기준 지하층에서 기초 구조물 철근과 접지선 상호 본딩을 하여야 하나 지상 층에서는 통합접지 공사, 지하층에서는 개별 접지 공사로 상호 부합하지 못함. (시공방법)
5. 케이블 트레이 및 레이스웨이 한국산업규격에 대한 적합 여부 재검토 필요.

이 다섯 가지 사항을 바라보며 실망한 나머지 영암군 담당자에게 시공사와 관계가 없는, 비용이 들지 않고 무상으로 검사 시험을 하는 협회에 의뢰, 재시험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재시험 요청 21일이 지난 4일 담당자에게 연락했다. 돌아오는 답은 시험사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동문서답이다. 6일 다시 군수실에 갔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비서실장의 거절이다.

참으로 오리무중이다.

이렇듯 군수실 문턱이 높다니? 그러나 다시 한 번 체면을 불고하고 용기를 내 지난 14일 다시 찾아갔다. 면담이 어려운데 약속을 받기위해서다. 역시 비서실에서는 면담자가 많아 어렵다고 한다.

영암군청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에게 칭찬은 못 할망정 이렇게 면박을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은 무용지물이다.

주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고 영암의 힘찬 건설을 위해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주시기를 한결같이 바라는 마음이다. / 전대영 기자

‘옥에 티’

2016/08/17 09:54 입력



공무원은 국민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과 공정하게 직무 해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공무원이 직업 1순위, 부모들도 가장 선호하는 자녀들의 직업순위도 1위라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의하면 공시생이 25만6,000여명, 이 중

에서 합격률은 10%라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에 주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본 기자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잘 못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해당 지자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행정관계부서 담당자와 상담하던 중 행정관계자와 상호 불편한 관계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매우 허탄하고 참담했다”- 문제점 -

1. 행정관 내에서 법규정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여 추후 군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나 해당 관계자는 소극적이었으며, 현지 조사도 이행하지 않고 민원처리 완료함.

2. 제1항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관청 감사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육안 또는 타인의 구두 의견에 따라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종결함.

3. 민원인을 조롱하는 것처럼 약 2년 동안 민원인에게 거짓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책상 서랍 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타 부서로 가버린 행위.

4.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해당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행정업무처리를 종결함.

5. 본 기자는 군민의 안전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님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매번 문전박대를 당했다. 군수실 문턱이 너무 높다는걸 실감했다.

6. 취재 중 의심된 부분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정보공개 요청으로 제출된 문서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알아볼 수 없음

7. 공무원의 공통어 :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업무 과다 등 수차례 거절을 당했다. 칭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옥에 티’ 라니 허탄하고 참담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쉴 틈 없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군민들의 입소문이 자자하다.

또한 2년여 동안 대불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360억원 등 1,198억 국·도비를 확보해 영암군의 재정규모가 4,300억원을 돌파. 민선 6기 목표인 풍요로운 영암! 살맛 나는 영암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어 영암군민들은 한결같이 군수님의 역량과 노고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전대영 기자